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 연구

- 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자료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박 소 진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 연구
- 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자료 분석-

지도 정 우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7월 8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박 소 진

박소진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우진 
심사위원 임승지 
심사위원 김지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년 7월 8일

감사의 말씀

먼저 본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가르침을 주신 정우진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사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교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고민의 기회를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그리고 늘 열정적인 강의와 힘이 되는 격려로 지도해 주신 박은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심과 본심을 통해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충고와 조언, 격려를 해주셨던 임승지 교수님,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지만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박계현 이사님, 박동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조언과 도움 주신 한규태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분석을 함께 고민해 주신 선지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한 과정을 함께 하며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신 조미정 선생님, 그리고 동기로서 많은 의지가 되었던 하대관 선생님, 조명수 선생님, 이신영 선생님, 이서운 선생님, 강맑음 선생님, 김예린 선생님, 박숙현 선생님, 심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동생 소정, 성현에게 고마움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다른 지역에 계시지만 멀리서라도 항상 따뜻하게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일과 학업 모두 마음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16년 7월
박소진 올림

차 례

국문요약

I. 서론	1
II. 연구방법	5
1. 연구설계	5
2. 연구대상 및 자료	7
3. 연구에 사용된 변수	10
가. 종속변수	10
나. 독립변수	11
4. 분석 방법	25
III. 연구결과	26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 분석	26
2.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 단변수 분석	33
가. 가족가치관 요인	33
나. 가정 요인	35
다. 인구사회 요인	38
3. 연구대상자의 우울 경험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40
가. 가족가치관 요인 『모델 1』	40
나. 가족가치관 요인과 가정 요인 『모델 2』	41
다.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 『모델 3』	42

IV. 고찰	48
1. 선행연구 방법 및 결과와 비교	49
2. 우울과 가치관 관련성 메커니즘	53
3. 정책적 시사점	55
4. 본 연구의 장점과 제한점	56
V.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73

표 차 례

표 1. 우울척도의 문항	11
표 2.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분: 가족가치관 요인	15
표 3.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분: 가정 요인	20
표 4.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분: 인구사회 요인	24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과 인구사회 요인	29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정 요인	30
표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가치관 요인	32
표 8.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단변수 분석: 가족가치관 요인	34
표 9.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단변수 분석 : 가정 요인	36
표 10.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단변수 분석 : 인구사회 요인	39
표 11. 연구대상자의 우울 경험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45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모형	6
그림 2. 연구대상 선정과정	9

국 문 요 약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 연구

- 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자료 분석 -

기혼여성의 우울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가정과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삶의 1차적 환경인 가족에 대한 주요한 심리특성 요인이자 사회와 가족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인 가족가치관에 주목하여 기혼여성의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제 4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 5,8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요인을 선정하였으며, 기술분석, 단변수 분석으로 Chi-square 검정, 다변수 분석으로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 가족가치관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 1』, 『모델 2』, 『모델 3』을 통해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 요인을 단계별로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가치관 요인은 『모델 1』에서 『모델 3』으로 진행될수록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기혼여성의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여성은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였다. 즉, 기혼여성은 결혼과 자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전통성이 약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그 성향

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였다. 결혼관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전통성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기혼여성에서 결혼관과 부부역할관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으로는 1년간 가구총소득이 낮고, 남편 연령이 많으며, 가사노동분담에 불만족하고 갈등상황 중 특히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로 갈등을 겪으며, 주관적 건강이 나쁜 집단이 우울 경험이 높았다. 반대로, 남편의 직종이 서비스, 판매 종사자거나, 여성의 직종이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는 무직인 집단에 비해 우울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순차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과 자녀, 이혼, 가정 내 부부역할 등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가족가치관과 우울과의 관련성 변화를 분석한 첫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족가치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여성의 우울 경험이 높은 것에 주목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여성의 개인의 성취와 사회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사회분위기의 전환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타겟 지향적 프로그램,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해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핵심어: 우울, 기혼여성, 가족가치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가족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1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5).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우울을 비롯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예방, 중증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초로 범정부차원의 합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6). 특히 자살의 주된 원인이 우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우울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중앙심리부검센터, 2016).

우울은 일생동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정신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양재곤, 1982). 우울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으로부터, 절망, 무력감, 죄책감, 욕구 상실, 집중력 장애, 수면 장애 등을 꼽을 수 있다(신경림, 1999).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에 걸쳐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평생유병률이 남성은 4.3%, 여성은 9.1%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우울장애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출산과 생리, 갱년기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과 이에 따른 자발적, 강압적 노동시장 퇴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기 때문이다(박재규, 이정림, 2011).

특히 기혼여성의 우울증에 의한 정신건강 문제가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

기혼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석임, 전희정, 2013; 김정선, 신경림, 2004; 이인숙, 2002; 장혜경, 차보경, 2003). 기혼 여성의 우울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결과적으로 우울한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하은혜, 오경자, 김은정, 1999).

이와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혼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 완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수명(2005)은 ‘한국 기혼여성의 우울증 역학분석 및 치료전략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우울증 취약 요인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에 따른 부담,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대인관계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꼽았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강석임, 전희정, 2013; 박재규, 이정림, 2011; 정세미, 2015)는 인구사회요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이선아(2014)의 연구에서는 만 1-3세 자녀를 둔 취업모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인정(2014)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우울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사회적지지 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이슬기, 2014; 이화진 등, 2015; 정유림, 2016), 결혼행복감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분담에 만족할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다.

한편, 안윤숙 등(2016)의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가치관 성향이 인구사회, 직장요인, 가정요인 중 영향

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이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지닐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낮은 것인데,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유일한 연구이다. 이 외 여성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상호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동, 김명희, 2011)와 효의식과 성역할이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영미, 한상훈, 2014)가 있으나 연구 대상이 직장 여성, 중년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증명한 선행연구결과(김미례, 2007; 김대명, 2014; 이윤주, 김진숙, 2012; 한인영, 홍선희, 2011)를 고려할 때, 여성의 생활을 둘러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주요한 심리특성 요인으로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안운숙 등(2016)의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이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확인이 된 만큼, 직장 여성뿐 만 아니라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 자료를 활용하여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를 포함한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결혼과 자녀, 이혼, 결혼에 비한 자아성취의 중요성 등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를 측정한 결혼관과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즉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태도로, 가치, 특성의 기대로 정의된다(Shaffer, 1999; 김경미, 양혜경, 2005; 한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다양한 부적응적인 특성을 수반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6; Nolen-Hoeksema, 1987).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요인 측정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으로 구분하여 가족가치관 요인

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가정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 대상은 기혼여성으로 우울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족가치관요인(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 가정요인(가구 총소득, 주거점유형태, 자녀수, 남편 연령과 학력, 일자리 직종,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갈등상황원인, 시댁가족과 친정가족과의 관계), 인구사회요인(연령, 학력, 직종, 거주지역, 종교, 주관적 건강)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기혼여성의 우울과 관련성이 밝혀진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가정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집단의 모든 변수에 대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고, 각각의 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들 중에서 우울과 가족가치관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요인별로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2-1040939-AB-N-01-2016-130)를 승인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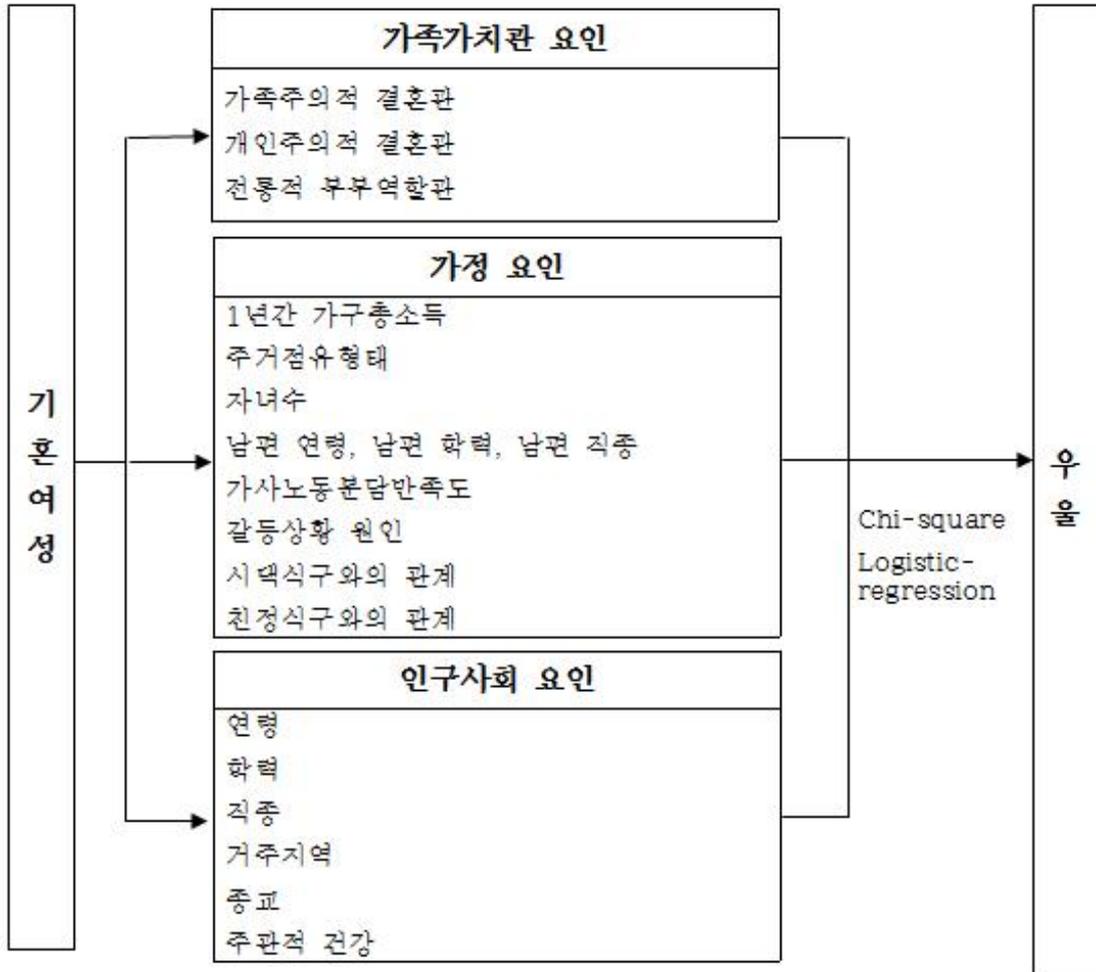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제 4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1차 표본조사단위(Primary Sampling Units; PSU) 추출을 위한 기본 표집틀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약 260,000개의 일반조사구(Enumeration District: ED)를 활용하여 도시화의 정도,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 주거형태별 가구 비율,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층화하였으며,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내의 가구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 PPS)을 적용하여 1,70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2차 표본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는 1차 표본추출단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 10,000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표본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추출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였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여성가족패널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제 1차 조사(2007년), 제2차 조사(2009년), 제3차 조사(2011년), 제4차 조사(2012년)를 완료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족, 일, 일상생활의 3가지 주요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실태, 가족가치관, 건강 등에 관해 조사하며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

본 연구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CES-D10 문항이 포함된 제 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제 4차 조사의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 자료를 가구식별번호에 따라 결합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기혼여성을 구분하기 위해 4차 조사에서 응답을 완료한 대상자(7,658명)에서 미혼여성 및

남편과 이혼, 별거, 사별 상태인 여성을 제외한 기혼여성으로서 독립변수에 결측이 없는 5,943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가정 요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내에 아동이 있으나 아동과의 관계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또는 친인척인 경우(125명)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5,81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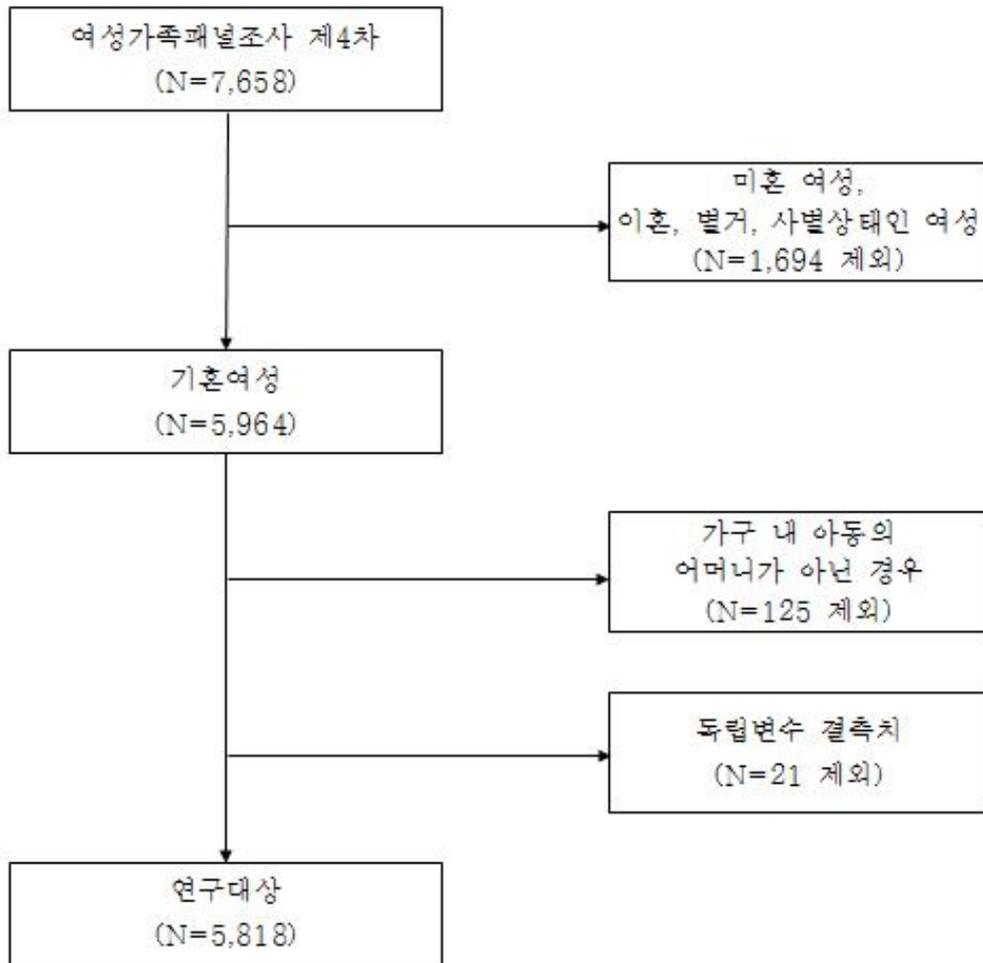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 선정과정.

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4차년도 여성가족패널의 우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의 축약본인 CES-D10으로 Randolff(1977)가 개발하고 이후 한국판으로 개발되어 우울을 측정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박재홍, 정지홍, 2010).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10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질문의 방향성이 다른 5번 항목(비교적 잘 지냈다)과 8번 항목(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역코딩하여 총점을 합산하였으며, 총점은 10점부터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점에서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cut-off point)에 대해 21점에서 25점 사이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박재홍, 정지홍, 2010; 이미애, 2011). 신승철 등(1991)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역학연구의 일차선별을 위한 우울과 비우울의 절단점(cut-off point)으로 24점을 권하고 있으며, 고령화패널을 활용한 연구에서 CES-D10의 절단점(cut-off point)을 24점으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Byeon and Cho, 2015).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으로 24점을 사용하였다.

우울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우울척도의 문항

문항내용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과 관련 다음 의견에 응답해 주십시오.)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3. 우울했다
 4.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5. 비교적 잘 지냈다
 6. 두려움을 느꼈다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변수를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년)자료에서 선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박재규, 이정림, 2011; 정세미, 2015)는 인구사회요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구분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인구사회요인, 직업관련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자아존중감 등을 포함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선아, 2014; 이인정, 2014).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우울

과 관련된 연구는 인구사회요인,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사회적지지 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이슬기, 2014; 이화진 등, 2015; 정유림, 2016), 안윤숙 등(2016)의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가치관 성향과 성역할태도를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기혼여성과 전업주부를 모두 포함한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독립변수를 결혼과 자녀, 이혼, 자아성취의 중요성, 성역할 태도 즉 부부역할관 등을 측정한 가족가치관요인을 중심으로, 남편 등 가족의 지지 요소가 포함된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가족가치관 요인

본 연구의 주요 설명 변인인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여성의 가족 관련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각 문항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표2).

① 가족주의적 결혼관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결혼은 꼭 해야 하고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측정한 것이다.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 문항의 총점을 합산하여 사분위수로 나누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점수가 낮을수록 연구대상의 해당 가치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주의적 결혼관, 즉 결혼관에 대한 ‘전통성’ 이 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총점은 5점부터 20점까지로 이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가장 강하다(9점미만)’, ‘강하다(9점-10점 미만)’, ‘약하다(10점-12점 미만)’, ‘가장 약하다(12점 이상)’로 범주화 하였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닌 기혼직장여성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로 긍정적인 전이과정을 거친다는 연구(김현동, 김명희, 2011)가 있다.

② 개인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결혼은 선택사항으로, 혼외 관계, 혼외 자녀, 동거, 이혼, 자아성취의 중요성 등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9가지 문항의 총점을 합산하여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9점에서 36점으로 이를 4분위수로 나누어 ‘가장 강하다(22점 미만)’, ‘강하다(22점-25점 미만)’, ‘약하다(25점-27점 미만)’, ‘가장 약하다(27점 이상)’로 범주화 하였다. 안윤숙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한 것은 현대적 가족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지닐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④ 전통적 부부역할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성가족패널에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안미영, 2015; 이어봉, 2010; 이진숙, 2012).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방향성이 반대 방향인 2번 항목(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 진다)과 4번 항목(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을 역코딩하여 1번 항목(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과 3번 항목(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과 함께 총점을 합산하였다. 총점이 낮을수록 전통적 부부역할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4점에서 16점으로 이를 4분위수로 나누어 가장 강하다(9점미만)’, ‘강하다(9점-10점미만)’, ‘약하다(10점-11점미만)’, ‘가장 약하다(11점 이상)’로 범주화 하였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선행연구에서 ‘성역할’이라는 용어로도 정의되어 사용되는데, 안미영(2015)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일하는 중장년 여성이 일가족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어봉(2010)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20-40대 연령층의 여성은 결혼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성역할 태도와 우울의 관계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는데, 성역할 태도와 우울의 부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 두 변수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으로 분석한 연구도 보고되었다(송리라, 이민아, 2012; 이현아, 2004; 한인영, 홍선희, 2011; 홍선경, 1996).

표 2.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분: 가족가치관 요인

변수명	측정 문항	정의
가족주의적 결혼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1. 가장 강하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2. 강하다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3. 약하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가장 약하다
개인주의적 결혼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1. 가장 강하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2. 강하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3. 약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4. 가장 약하다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전통적 부부역할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1. 가장 강하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강하다
		3. 약하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이 분담해야 한다	4. 가장 약하다

2) 가정 요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성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가정요인 변수를 여성가족 패널 설문문항에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3).

① 1년간 가구총소득

가구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방법(가구 균등화 소득=연간 가구 총소득÷ $\sqrt{\text{가구 구성원의 수}}$)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4 개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다. ‘1,386만원 미만’, ‘1,386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2,886만원 미만’, ‘2,886만원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수준 및 소득수준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석임, 전희정, 2013).

② 주거점유 형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 로 구분하였다. ‘전세’와 ‘월세’보다 ‘자가’인 경우 여성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었다(최말옥, 2011).

③ 자녀 수

자녀는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어머니의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지원, 2003). 자녀의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이지원, 2003; 장문선, 2003)를 참고하여 자녀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수를 범주화 하였다. 자녀의 수는 ‘자녀 없음’,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성인자녀 1명 이상’,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 성인자녀 1명 이상’ 으로 총 6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빈도수가 지나치게 적은 미취학 자

녀, 초중고 자녀, 성인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n=7)와 미취학 자녀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n=3)는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그룹에 포함시켰다.

④ 남편연령

남편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간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갈등이 적다고 밝힌 연구(박은옥, 1997)가 있었으며, 이인숙(2002)의 연구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지지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⑤ 남편학력

남편의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인숙, 2002).

⑥ 남편직종

여성가족패널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0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무직’,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으로 분류하였다. 안지연, 이성은(2014)은 직업분류별 스트레스 정도에서 ‘무직’과 비교하였을 때, ‘관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⑦ 가사노동분담만족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하시는 편입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

하였으며, ‘만족’, ‘보통’, ‘불만족’의 3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미례, 2007; 안윤숙 등, 2016; 정유림, 2015; 호윤정, 2015). 가사노동분담은 여성의 출산의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정을 구성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Yoon, 2016).

⑧ 갈등상황 원인

‘지난 한달 동안 부부간 말다툼을 하거나 하루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일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하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적 없음’, ‘경제적인 문제’, ‘육아, 자녀교육 문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친구관계, 생활습관’, ‘부부간 가사분담’의 6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은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함이 지적되었다. 여성은 가정의 유대관계를 잘 이끌어가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부부갈등을 경험할 때 남성보다 갈등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지각하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남성보다 더 느끼게 된다(김현미 2016). 우리나라 부부간의 갈등은 문화적 특성상 가족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박경순, 2009). 배우자의 성격, 생활습관, 성격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문상정, 2013)가 있었다.

⑨ 시대가족과 관계

시대가족과 관계는 시부모님이나 시대 형제들을 만나는 빈도에 대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의 4개의 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범주에는 결측(n=13)을 포함시켰다. 부부동반 시대식구를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경우보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나는 경우가 우울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이는 연구(정유림, 2016)가 있었다.

⑩ 친정가족과 관계

친정가족과 관계는 친정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을 만나는 빈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의 4개의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다. 정유림(2016)은 친정가족 또한 자주 만날수록 우울이 통계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표 3.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분: 가정 요인

변수명	정의
1년간 가구총소득*	1. 1,385 만원 미만(Ref) 2. 1,385 만원 이상 2,000 만원 미만 3. 2,000 만원 이상 2,886 만원 미만 4. 2,886 만원 이상
주거점유형태	1. 자가(Ref) 2. 전세 3. 월세
자녀 수 [†]	1. 자녀 없음(Ref) 2.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3.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4. 성인자녀 1명 이상 5. 미취학 자녀 + 초중고 자녀 6. 초중고 자녀 + 성인자녀
남편연령	1. 30대 이하(Ref)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남편학력	1. 중졸 이하(Ref) 2. 고졸 3. 대졸 이상
남편직종	0. 무직(Ref) 1.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2.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가사노동분담만족 [‡]	1. 만족(Ref) 2. 보통 3. 불만족

표 3. (계속)

변수명	정의
갈등상황 원인 [†]	0. 그런 적 없음(Ref) 1. 경제적인 문제 2. 육아, 자녀교육 문제 3.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4.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친구관계, 생활습관 5. 부부간 가사분담
시댁가족과의 관계 [§]	1. 일주일에 1번 이상(Ref) 2. 2주에 1번 정도 3. 한 달에 한번 4. 한 달에 한번도 안함
친정가족과의 관계 [§]	1. 일주일에 1번 이상(Ref) 2. 2주에 1번 정도 3. 한 달에 한번 4. 한 달에 한번도 안함

*1년간 가구총소득: 가구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방법 (가구 균등화 소득=연간 가구 총소득÷√가구 구성원의 수)

[†]자녀 수: 5.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6.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 성인자녀 1명 이상

[‡]가사노동분담만족: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갈등상황 원인: 지난 한달 동안 부부간 말다툼을 하거나 하루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일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시댁가족과의 관계, 친정가족과의 관계: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부가 같이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들을 만나기, 부부가 같이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을 만나기)

3) 인구사회 요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구사회 요인은 다음과 같다(표4).

① 연령

기혼여성의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문선, 김영환, 2003).

② 학력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박재규와 이정림(2011)은 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의 경험이 높다고 밝혔다.

③ 직종

여성가족패널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0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무직’,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으로 분류하였다. 무직을 포함한 직업분류별 우울증상 정도에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우울 증상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안지연, 이성은, 2014).

④ 거주지역

국가통계포털 기준으로 지역코드에 따라 ‘서울시’,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구)’ 으로 범주화하였다. 신미애, 김태숙(2003)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도시 거주 여성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우울증 지수가 낮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다(이화진 등, 2015).

⑤ 종교

다수의 응답자가 속하는 ‘개신교’, ‘천주교(카톨릭)’, ‘불교, 원불교’로 구분하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 기타 종교는 10명 미만으로 ‘종교 없음’에 포함시켜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종교는 무교인 집단이 우울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밝힌 연구가 있었다(이동훈 등, 2013).

⑥ 주관적 건강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대체로 좋다’는 ‘ 좋음’의 하나의 범주로, ‘보통이다’, ‘조금, 매우 나쁘다’는 ‘나쁨’의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총 3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주관적 건강이 나쁠수록 우울의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석임, 전희정 2013; 이화진 등, 2015).

표 4. 독립변수의 정의 및 구분: 인구사회 요인

변수명	정의
연령	1. 30대 이하(Ref)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학력	1. 중졸 이하(Ref) 2. 고졸 3. 대졸 이상
직종	0. 무직(Ref) 1.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2.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거주지역	1. 서울(Ref) 2. 대도시 3. 중소도시 4. 농어촌
종교	0. 종교 없음 (기타)(Ref) 1. 개신교 2. 천주교(카톨릭) 3. 불교, 원불교
주관적 건강	1. 좋음(Ref) 2. 보통 3. 나쁨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 요인에 대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둘째, 단변수 분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고, p값을 제시하였다.

셋째, 우울감 관련 요인에 대한 다변수 분석을 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가족가치관 요인을 통제하였고, 『모델 2』에서는 가족가치관 요인과 가정 요인을, 『모델 3』에서는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 요인을 단계별로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모델에서 추가된 변수요인에 따라 가족가치관 요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연령(5.7)과 남편의 연령(5.6)을 제외하고 모두 5 미만이었다.

분석결과는 각 단계별 교차비(Odds Ratio, OR) 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ver 9.4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각 모델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statistic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 분석

제 4차 여성가족패널(2012)중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연구대상자는 총 5,818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표 6, 표 7).

먼저, 우울을 경험한 기혼여성은 804명으로 연구대상의 13.8%를 차지하였다. 인구사회 요인을 살펴보면, ‘20-30대’가 1,427명(24.5%), ‘40대’가 1,963명(33.7%), ‘50대’가 1,406명(24.2%), ‘60대’가 1,022명(17.6%)이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1,704명(29.3%)로 가장 적었으며, ‘대졸 이상’이 5,818명(31.5%), ‘고졸’이 3,986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직종은 ‘전업주부’가 2,723명(46.8%)로 기혼여성의 절반가량이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이 있는 기혼여성의 직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가 835명(14.4%),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1,003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654명(11.2%),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가 603명(10.4%)를 차지했다. 거주지역은 ‘서울시’가 548명(9.4%), ‘대도시’가 1,924명(33.1%), ‘중소도시’가 2,401명(41.3%)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이 945명(16.2%)이었다. 종교는 ‘종교 없음’이 2,431명(41.8%)로 절반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신교’가 1,279명(22.0%), ‘천주교(카톨릭)’이 436명(7.5%)로 가장 적었으며, ‘불교, 원불교’가 1,672명(28.7%)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은 ‘좋음’으로 보고한 대상이 3,096명(53.2%)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1,968명(33.8%), ‘나쁨’이 754명(13.0%)로 가장 적었다.

가정 요인 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년간 가구총소득은 1사분위수인 ‘1,385만원 미만’ 이 1,461명(25.1%), 2사분위수인 ‘1,385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이 1,339명(23.0%), 3사분위수인 ‘2,000만원 이상 2,886만원 미만’ 이 1,545명(26.6%), 4사분위수인 ‘2,886만원 이상’ 이 1,473명(25.3%)이었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가 4,387명 (7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수는 ‘자녀 없음’ 이 934명(16.1%),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이 487명(8.4%), ‘초중고자녀 1명이상’ 이 1,560명(26.8%), ‘성인자녀 1명이상’ 이 1,754명(30.2%)으로 가장 많았다. 남편연령은 40대가 1,928명(33.1%)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학력은 ‘대졸 이상’ 이 2,411명(41.4%) 가장 많았다. 남편 직종은 ‘무직’ 이 1,156명(19.9%),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가 1,600명(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판매 종사자’ 가 694명(11.9%)으로 가장 적었다. 가사노동분담만족은 ‘보통’ 이 2,436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이 2,010명(34.6%), ‘불만족’ 이 1,327명(23.6%)순이었다. 갈등상황 원인으로는 ‘그런 적 없음’ 이 4,551명(78.2%)이었으며, 갈등상황을 경험한 그룹에서는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친구관계, 생활습관’ 이 455명(7.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 가 400명(6.9%), ‘육아, 자녀교육 문제’ 가 290명(5.0%),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과 관계’ 가 81명(1.4%), ‘부부간 가사분담’ 이 41명(0.7%)순으로 많았다. 시댁가족과 관계(시부모, 시댁형제 만나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함’ 이 3,426명(58.9%), ‘한 달에 한번’ 이 1,526명(26.2%)순으로 많았으며, 친정가족과 관계(친정부모, 형제 만나기) 또한 ‘한 달에 한 번도 안함’ 이 3,643명(62.6%), ‘한 달에 한번’ 이 1,465명(25.2%)순으로 많았다.

가족가치관 요인 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가장 강하다’ 가 1,180명(20.3%), ‘강하다’ 가 587명(10.1%), ‘약하다’ 가 2,110명(36.3%), ‘가장 약하다’ 가 1,941명(33.4%)이었다. 개인주

의적 결혼관은 ‘가장 강하다’ 가 991명(17.0%), ‘강하다’ 가 1,757명(30.2%), ‘약하다’ 가 1,294명(22.2%), ‘가장 약하다’ 가 1,776명(30.5%)이었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가장 강하다’ 가 512명(8.8%), ‘강하다’ 가 998명(17.15%), ‘약하다’ 가 1,919명(32.98%), ‘가장 약하다’ 가 2,389명(41.06%) 이었다.

표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과 인구사회 요인

변수	빈도(%)
우울	
예	804 (13.8)
아니오	5,014 (86.2)
인구사회요인	
연령	
30대 이하	1,427 (24.5)
40대	1,963 (33.7)
50대	1,406 (24.2)
60대 이상	1,022 (17.6)
학력	
중졸 이하	1,704 (29.3)
고졸	3,986 (39.2)
대졸 이상	5,818 (31.5)
직종	
전업주부	2,723 (46.8)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835 (14.4)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03 (17.2)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654 (11.2)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603 (10.4)
거주지역	
서울시	548 (9.4)
대도시	1,924 (33.1)
중소도시	2,401 (41.3)
농어촌	945 (16.2)
종교	
종교 없음(기타)	2,431 (41.8)
개신교	1,279 (22.0)
천주교(카톨릭)	436 (7.5)
불교, 원불교	1,672 (28.7)
주관적건강	
좋음	3,096 (53.2)
보통	1,968 (33.8)
나쁨	754 (13.0)

표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정 요인

변수	빈도(%)
1년간 가구총소득	
1,385만원 미만	1,461 (25.1)
1,385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339 (23.0)
2,000만원 이상 2,886만원 미만	1,545 (26.6)
2,886만원 이상	1,473 (25.3)
주거점유형태	
자가	4,387 (75.4)
전세	818 (14.1)
월세 및 기타	613 (10.5)
자녀 수	
자녀 없음	934 (16.1)
미취학자녀 1명 이상	487 (8.4)
초중고자녀1명이상	1,560 (26.8)
성인자녀1명이상	1,754 (30.2)
미취학자녀 + 초중고자녀	563 (9.7)
초중고자녀 + 성인자녀	520 (8.9)
남편연령	
30대 이하	927 (15.9)
40대	1,928 (33.1)
50대	1,464 (25.2)
60대 이상	1,499 (25.8)
남편학력	
중졸 이하	1,315 (22.6)
고졸	2,092 (36.0)
대졸 이상	2,411 (41.4)
남편 직종	
무직	1,156 (19.9)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1,600 (27.5)
서비스, 판매 종사자	694 (1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95 (13.7)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1,573 (27.0)

표6. (계속)

변수	빈도 (%)
가사노동분담만족	
만족	2,010 (34.6)
보통	2,436 (41.9)
불만족	1,372 (23.6)
갈등상황 원인	
그런 적 없음	4,551 (78.2)
경제적인 문제	400 (6.9)
육아, 자녀교육 문제	290 (5.0)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81 (1.4)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친구관계, 생활습관	455 (7.8)
부부간가사분담	41 (0.7)
시댁가족과 관계(시부모, 시댁형제 만나기)	
일주일에 1번 이상	460 (7.9)
2주에 1번 정도	406 (7.0)
한 달에 한번	1,526 (26.2)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3,426 (58.9)
친정가족과 관계(친정부모, 형제 만나기)	
일주일에 1번 이상	348 (6.0)
2주에 1번 정도	362 (6.2)
한 달에 한번	1,465 (25.2)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3,643 (62.6)

표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가치관 요인

변수	빈도 (%)
가족주의적 결혼관	
가장 강하다	1,180 (20.3)
강하다	587 (10.1)
약하다	2,110 (36.3)
가장 약하다	1,941 (33.4)
개인주의적 결혼관	
가장 강하다	991 (17.0)
강하다	1,757 (30.2)
약하다	1,294 (22.2)
가장 약하다	1,776 (30.5)
전통적 부부역할관	
가장 강하다	512 (8.8)
강하다	998 (17.2)
약하다	1,919 (33.0)
가장 약하다	2,389 (41.0)

2.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 단변수 분석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p 값이 0.05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가족가치관 요인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8).

연구대상자 5,818명 중 우울을 경험한 대상자 수는 804명(13.8%)이었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강하다’ 그룹의 우울의 경험이 11.3%로 가장 낮고, ‘가장 약하다’ 그룹의 우울의 경험이 17.2%로 가장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강하다’ 그룹의 우울의 경험이 19.5%로 가장 많고, ‘약하다’가 12.3%, ‘가장 약하다’ 그룹이 12.6%로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 < .001$), 결혼관은 가족주의적 성향이 약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즉 전통적 성향이 약할수록 우울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그 성향이 ‘가장 강하다’ 그룹이 17.4%로 우울의 경험이 가장 높고 ‘강하다’가 13.5%, ‘약하다’ 13.1%, ‘가장 약하다’ 그룹이 13.7%으로 부부역할관의 전통적 성향이 강한 그룹이 우울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98$).

표8.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단변수 분석: 가족가치관 요인

변수	우울		P
	예 n=804	아니오 n=5014	
가족주의적 결혼관			
가장 강하다	133 (11.3)	1,047 (88.7)	<.001
강하다	79 (13.5)	508 (86.5)	
약하다	259 (12.3)	1,851 (87.7)	
가장 약하다	333 (17.2)	1,608 (82.8)	
개인주의적 결혼관			
가장 강하다	193 (19.5)	798 (80.5)	<.001
강하다	229 (13.0)	1,528 (87.0)	
약하다	159 (12.3)	1,135 (87.7)	
가장 약하다	223 (12.6)	1,553 (87.4)	
전통적 부부역할관			
가장 강하다	89 (17.4)	423 (82.6)	0.098
강하다	135 (13.5)	863 (86.5)	
약하다	252 (13.1)	1,667 (86.9)	
가장 약하다	328 (13.7)	2,061 (86.3)	

나. 가정 요인

기혼여성의 가정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9).

1년간 가구총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의 경험이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자녀 수는 ‘자녀 없음’, ‘성인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 성인자녀 1명 이상’, ‘미취학자녀 1명 이상 이상+ 초중고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순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우울의 경험이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남편연령은 높을수록, 남편의 학력은 낮을수록, 남편이 무직이거나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인 경우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가사노동분담만족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우울의 경험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갈등상황원인은 ‘그런 적 없음’ 그룹이 우울의 경험이 가장 낮고(10.6%), ‘경제적인 문제’가 32.5%,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과의 관계’가 32.1%로 우울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시댁가족과 친정가족과의 관계는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룹의 우울의 경험이 가장 높았으나(각각 16.2%, 16.5%), 시댁가족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는 그룹이 12.4%로 다음 순으로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주거점유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9.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단변수 분석 : 가정 요인

변수	우울		P
	예 n=804	아니오 n=5014	
1년간 가구총소득			
1,385만원 미만	319 (21.8)	1,142 (78.2)	<.001
2,000만원 미만	209 (15.6)	1,130 (84.4)	
2,886만원 미만	151 (9.8)	1,394 (90.2)	
2,886만원 이상	125 (8.5)	1,348 (91.5)	
주거점유형태			
자가	597 (13.6)	3,790 (86.4)	0.154
전세	107 (13.1)	711 (86.9)	
월세 및 기타	100 (16.3)	513 (83.7)	
자녀 수			
자녀 없음	176 (18.8)	758 (81.2)	<.001
미취학자녀 1명 이상	48 (9.9)	439 (90.1)	
초중고자녀1명이상	160 (10.3)	1,400 (89.7)	
성인자녀1명이상	273 (15.6)	1,481 (84.4)	
미취학자녀 + 초중고자녀	71 (12.6)	492 (87.4)	
초중고자녀 + 성인자녀	76 (14.6)	444 (85.4)	
남편연령			
30대 이하	89 (9.6)	838 (90.4)	<.001
40대	205 (10.6)	1,723 (89.4)	
50대	211 (14.4)	1,253 (85.6)	
60대 이상	299 (19.9)	1,200 (80.1)	
남편학력			
중졸 이하	268 (20.4)	1,047 (79.6)	<.001
고졸	304 (14.5)	1,788 (85.5)	
대졸이상	232 (9.6)	2,179 (90.4)	
남편직종			
무직	232 (20.1)	924 (79.9)	<.001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138 (8.6)	1,462 (91.4)	
서비스, 판매 종사자	75 (10.8)	619 (8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9 (15.0)	676 (85.0)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240 (15.3)	1,333 (84.7)	

표9. (계속)

변수	우울		P
	예 n=804	아니오 n=5014	
가사노동분담만족			
만족	200 (10.0)	1,810 (90.0)	<.001
보통	303 (12.4)	2,133 (87.6)	
불만족	301 (21.9)	1,071 (78.1)	
갈등상황 원인			
그런 적 없음	484 (10.6)	4,067 (89.4)	<.001
경제적인 문제	130 (32.5)	270 (67.5)	
육아, 자녀교육 문제	43 (14.8)	247 (85.2)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26 (32.1)	55 (67.9)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친구관계, 생활습관	114 (25.1)	341 (74.9)	
부부간가사분담	7 (17.1)	34 (82.9)	
시댁가족과 관계			
일주일에 1번 이상	57 (12.4)	403 (87.6)	<.001
2주에 1번 정도	42 (10.3)	364 (89.7)	
한 달에 한번	150 (9.8)	1,376 (90.2)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555 (16.2)	2,871 (83.8)	
친정가족과 관계			
일주일에 1번 이상	31 (8.9)	317 (91.1)	<.001
2주에 1번 정도	40 (11.0)	322 (89.0)	
한 달에 한번	131 (8.9)	1,334 (91.1)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602 (16.5)	3,041 (83.5)	

다. 인구사회 요인

기혼여성의 인구사회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10).

연령은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직종은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그룹이 17.1%, 전업주부가 14.6%로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거주지역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17.0%로 우울의 경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4$). 주관적 건강은 나쁜 그룹이 36.7%, 보통인 그룹이 13.6%, 좋은 그룹이 8.4%로 우울의 경험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종교는 불교인 경우가 15.4%, 종교가 없는 경우가 13.4%, 천주교인 경우가 13.1%, 개신교인 경우가 1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10. 연구대상자의 우울 여부 비교 단변수 분석 : 인구사회 요인

변수	우울		P
	예 n=804	아니오 n=5014	
연령			
30대 이하	149 (10.4)	1,278 (89.6)	<.001
40대	222 (11.3)	1,741 (88.7)	
50대	211 (15.0)	1,195 (85.0)	
60대 이상	222 (21.7)	800 (78.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8 (19.8)	1,366 (80.2)	<.001
고졸	290 (12.7)	1,992 (87.3)	
대졸 이상	176 (9.6)	1,656 (90.4)	
직종			
전업주부	397 (14.6)	2,326 (85.4)	<.001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78 (9.3)	757 (90.7)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6 (13.6)	867 (86.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0 (13.8)	564 (86.2)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103 (17.1)	500 (82.9)	
거주지역			
서울시	84 (15.3)	464 (84.7)	0.004
대도시	260 (13.5)	1,664 (86.5)	
중소도시	299 (12.5)	2,102 (87.5)	
농어촌	161 (17.0)	784 (83.0)	
종교			
종교 없음(기타)	326 (13.4)	2,105 (86.6)	0.143
개신교	163 (12.7)	1,116 (87.3)	
천주교(카톨릭)	57 (13.1)	379 (86.9)	
불교, 원불교	258 (15.4)	1,414 (84.6)	
주관적 건강			
좋음	260 (8.4)	2,836 (91.6)	<.001
보통	267 (13.6)	1,701 (86.4)	
나쁨	277 (36.7)	477 (63.3)	

3. 연구대상자의 우울 경험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우울 경험과 관련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확인된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고, 연구대상의 연령과 남편연령을 제외하고 분산확대인자(VIF)가 5미만으로 문제가 될 변수는 없었다. 각 모델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statistic을 확인하였으며, 『모델 1』은 0.582, 『모델 2』는 0.738, 『모델 3』은 0.779로 50%보다 높아 모든 모델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모델 3』의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가족가치관 요인 『모델 1』

『모델 1』은 가족가치관요인인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에 따른 기혼여성의 우울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강하다’에 비해 ‘가장 약하다’의 교차비가 1.62(95% CI=1.29-2.0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가장 강하다’에 비해 ‘강하다’의 교차비가 0.63(95% CI=0.51-0.78), ‘약하다’의 교차비가 0.62(95% CI=0.49-0.78), ‘가장 약하다’의 교차비가 0.65(95% CI=0.52-0.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가장 강하다’에 비해 ‘강하다’의 교차비가 0.71(95% CI=0.53-0.95), ‘약하다’의 교차비가 0.68(95% CI=0.52-0.90), ‘가장 약하다’의 교차비가 0.68(95% CI=0.53-0.8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 가족가치관 요인과 가정 요인 『모델 2』

『모델 2』는 『모델 1』에 가정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기혼여성의 우울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정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여전히 우울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모델 1』보다 『모델 2』에서 교차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외 1년간 가구총소득, 남편 연령, 남편학력, 남편직종, 가사노동분담만족, 갈등상황원인이 우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 경험의 교차비는 『모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가족주의적 결혼관의 ‘강하다’의 교차비가 ‘가장 강하다’에 비해 1.39(95% CI=1.02-1.9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약하다’의 교차비도 ‘가장 강하다’에 비해 교차비가 1.74(95% CI=1.36-2.22)으로 『모델 1』에 비해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준거집단인 ‘가장 강하다’에 비해 그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낮아졌다(강하다 OR=0.57, 95% CI=0.45-0.72; 약하다 OR=0.50, 95% CI=0.39-0.65; 가장 약하다 OR=0.46, 95% CI=0.36-0.59).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강하다’가 준거집단인 ‘가장 강하다’에 비해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0.72(95% CI=0.53-0.99), ‘약하다’ 집단의 교차비가 0.68(95% CI=0.51-0.91)으로, ‘가장 약하다’ 집단의 교차비가 0.74(95% CI=0.56-0.9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년간 가구총소득은 1사분위수인 ‘1,386만원 미만’인 그룹에 비해 ‘1,386-2,000만원 미만’에서 0.77(95% CI=0.61-0.95), ‘2,000-2,886만원 미만’ 집단에서 0.52(95% CI=0.41-0.65), ‘2,886만원 이상’ 집단에서 0.53(95% CI=0.41-0.69)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남편연령은 준거집단인 ‘20-30대’에 비해 ‘50대’ 집단이 1.99(95% CI=1.32-3.01), ‘60대’ 집단이 2.86(95% CI=1.80-4.55)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학력은 준거집단인 ‘중졸 이

하'에 비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졸 OR=0.79, 95% CI=0.63-0.99; 대졸 이상 OR=0.71, 95% CI=0.54-0.94). 남편직종은 '무직'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집단이 0.73(95% CI=0.56-0.96),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집단이 0.58(95% CI=0.43-0.79), '농임어업 종사자' 집단이 0.60(95% CI=0.46-0.78)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가사노동분담만족은 '만족' 집단에 비해 '불만족 집단'이 1.80(95% CI=1.46-2.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갈등상황 원인은 준거집단인 '그런적 없음'에 비해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 그룹이 4.28(95% CI=2.57-7.12)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인 문제' 집단이 3.17(95% CI=2.47-4.07), '부부의 직장, 친구, 생활습관 문제' 그룹이 2.53(95% CI=1.97-3.24), '육아, 자녀교육 문제' 그룹이 2.02(95% CI=1.40-2.90)으로 우울의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다.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 『모델 3』

『모델 3』은 『모델 2』에 인구사회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기혼여성의 우울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정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을 모두 보정한 상태에서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여전히 우울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모델 2』보다 『모델 3』에서 교차비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가족주의적 결혼관의 '약하다' 집단이 준거 집단인 '가장 강하다'에 비해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1년간 가구총소득, 남편연령, 남편직종, 가사노동분담만족, 갈등상황원인, 기혼여성의 직종, 주관적 건강이 우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남편학력 변수는 『모델 3』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 경험의 교차비는 가족주의적 결혼

관에서 준거집단인 ‘가장 강하다’에 비해 ‘강하다’ 집단에서 1.49(95% CI=1.07-2.07), ‘약하다’ 집단에서 1.32(95% CI=1.02-1.69), ‘가장 약하다’ 집단에서 1.93(95% CI=1.49-2.49)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준거집단인 ‘가장 강하다’에 비해 그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낮아졌다(강하다 OR=0.57, 95% CI=0.45-0.72; 약하다 OR=0.51, 95% CI=0.39-0.66, 가장 약하다 OR=0.43, 95% CI=0.34-0.56).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준거 집단인 ‘가장 강하다’에 비해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강하다’ 집단이 0.69(95% CI=0.49-0.96), ‘약하다’ 집단이 0.64(95% CI=0.47-0.86), ‘가장 약하다’ 집단이 0.70(95% CI=0.52-0.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1년간 가구총소득은 1사분위수인 ‘1,386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3사분위수인 ‘2,000-2,886만원 미만’ 집단이 0.58(95% CI=0.45-0.74), 4사분위수인 ‘2,886만원 이상’ 집단이 0.61(95% CI=0.46-0.81)이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남편 연령은 ‘20-30대’ 준거 집단에 비해 ‘50대’인 집단이 1.82(95% CI=1.11-3.00)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 직종은 ‘무직’에 비해 ‘서비스, 판매 종사자’ 그룹이 0.62(95% CI=0.45-0.86)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가사노동분담 만족은 ‘만족’ 집단에 비해 ‘불만족 집단이’ 1.73(95% CI=1.39-2.16)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갈등상황 원인은 준거집단인 ‘그런적 없음’에 비해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4.15(95% CI=2.45-7.02)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문제’ 집단이 3.22(95% CI=2.47-4.19), ‘부부의 직장, 친구, 생활습관 문제’가 2.68(95% CI=2.06-3.47), ‘육아, 자녀교육 문제’ 집단이 2.29(95% CI=1.58-3.32)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혼 여성의 직종은 준거집단인 ‘전업주부’에 비해 ‘농임어업 종사자’ 집단이 0.62(95% CI=0.43-0.90)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주관적 건강은 ‘좋다’인 집단에 비해 ‘보통이다’ 집

단이 1.55 (95% CI=1.27-1.89), ‘나쁘다’ 집단이 5.85 (95% CI=4.60-7.43)으로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11. 연구대상자의 우울 경험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족가치관 요인						
가족주의적 결혼관						
가장 강하다	1.00		1.00		1.00	
강하다	1.25	(0.93-1.69)	1.39**	(1.02-1.91)	1.49***	(1.07-2.07)
약하다	1.14	(0.91-1.43)	1.24	(0.98-1.58)	1.32*	(1.02-1.69)
가장 약하다	1.62***	(1.29-2.02)	1.74***	(1.36-2.22)	1.93*	(1.49-2.49)
개인주의적 결혼관						
가장 강하다	1.00		1.00		1.00	
강하다	0.63***	(0.51-0.78)	0.57***	(0.45-0.72)	0.57***	(0.45-0.72)
약하다	0.62***	(0.49-0.78)	0.50***	(0.39-0.65)	0.51***	(0.39-0.66)
가장 약하다	0.65**	(0.52-0.80)	0.46***	(0.36-0.59)	0.43***	(0.34-0.56)
전통적 부부역할관						
가장 강하다	1.00		1.00		1.00	
강하다	0.71*	(0.53-0.95)	0.72*	(0.53-0.99)	0.69*	(0.49-0.96)
약하다	0.68**	(0.52-0.90)	0.68**	(0.51-0.91)	0.64**	(0.47-0.86)
가장 약하다	0.68**	(0.53-0.89)	0.74*	(0.56-0.98)	0.70*	(0.52-0.95)
가정 요인						
1년간 가구총소득						
1,386만원 미만			1.00		1.00	
1,386만원 이상			0.77*	(0.61-0.95)	0.84	(0.67-1.06)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0.52***	(0.41-0.65)	0.58***	(0.45-0.74)
2,886만원 미만						
2,886만원 이상			0.53***	(0.41-0.69)	0.61***	(0.46-0.81)
주거점유형태						
자가			1.00		1.00	
전세			1.14	(0.89-1.46)	1.11	(0.86-1.44)
월세 및 기타			1.09	(0.84-1.41)	1.06	(0.81-1.38)
자녀 수						
자녀 없음			1.00		1.00	
미취학 1명 이상			1.18	(0.71-1.98)	1.37	(0.78-2.39)
초중고1명이상			1.04	(0.72-1.51)	1.23	(0.82-1.84)
성인자녀1명이상			0.98	(0.77-1.24)	1.00	(0.78-1.29)
미취학+초중고자녀			1.28	(0.82-2.02)	1.61	(0.98-2.65)
초중고+성인자녀			1.26	(0.87-1.83)	1.48	(0.98-2.24)

표11. (계속)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남편 연령						
30대 이하			1.00		1.00	
40대			1.28	(0.92-1.77)	1.32	(0.9-1.92)
50대			1.99**	(1.32-3.01)	1.82*	(1.11-3.00)
60대 이상			2.86***	(1.80-4.55)	1.81	(0.99-3.33)
남편 학력						
중졸 이하			1.00		1.00	
고졸			0.79**	(0.63-0.99)	0.96	(0.73-1.26)
대졸이상			0.71**	(0.54-0.94)	0.87	(0.61-1.24)
남편 직종						
무직			1.00		1.00	
관리자, 전문가, 사무			0.73*	(0.56-0.96)	0.79	(0.59-1.05)
서비스, 판매			0.58**	(0.43-0.79)	0.62**	(0.45-0.86)
농임어업			0.60**	(0.46-0.78)	0.76	(0.54-1.08)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군인			0.87	(0.69-1.09)	0.91	(0.72-1.16)
가사노동분담만족						
만족			1.00		1.00	
보통			1.11	(0.91-1.35)	1.10	(0.90-1.36)
불만족			1.80***	(1.46-2.22)	1.73***	(1.39-2.16)
갈등상황 원인						
그런적 없음			1.00		1.00	
경제적인 문제			3.17***	(2.47-4.07)	3.22***	(2.47-4.19)
육아, 자녀교육			2.02**	(1.40-2.90)	2.29***	(1.58-3.32)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			4.28***	(2.57-7.12)	4.15***	(2.45-7.02)
부부의 직장, 친구, 생활습관			2.53***	(1.97-3.24)	2.68***	(2.06-3.47)
부부간가사분담			1.58	(0.68-3.71)	1.75	(0.73-4.24)
시대가족과 관계						
일주일 1번 이상			1.00		1.00	
2주에 1번 정도			0.84	(0.52-1.33)	0.85	(0.53-1.38)
한달에 한번			0.82	(0.57-1.17)	0.88	(0.61-1.29)
한달에 한번도 안함			0.89	(0.64-1.24)	0.93	(0.66-1.32)

표11. (계속)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친정가족과 관계						
일주일에 1번 이상			1.00		1.00	
2주에 1번 정도			1.21	(0.70-2.07)	1.26	(0.73-2.18)
한달에 한번			0.95	(0.61-1.48)	0.98	(0.62-1.54)
한달에 한번도 안함			1.38	(0.91-2.10)	1.35	(0.88-2.07)
인구사회 요인						
연령						
30대 이하					1.00	
40대					0.87	(0.62-1.23)
50대					1.06	(0.64-1.73)
60대 이상					1.24	(0.69-2.24)
학력						
중졸 이하					1.00	
고졸					0.87	(0.65-1.18)
대졸이상					0.94	(0.63-1.39)
직종						
전업주부					1.00	
관리자, 전문가, 사무					1.05	(0.78-1.43)
서비스, 판매					1.15	(0.90-1.47)
농임어업 종사자					0.62*	(0.43-0.90)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군인					1.13	(0.86-1.49)
거주지역						
서울시					1.00	
대도시					1.00	(0.73-1.36)
중소도시					0.81	(0.60-1.10)
농어촌					1.07	(0.74-1.54)
종교						
종교없음(기타)					1.00	
개신교					0.93	(0.75-1.17)
천주교(카톨릭)					1.03	(0.73-1.44)
불교, 원불교					1.02	(0.83-1.24)
주관적 건강						
좋음					1.00	
보통					1.55***	(1.27-1.89)
나쁨					5.85***	(4.60-7.43)
C statistic		0.582		0.738		0.779

 * $p < .05$ ** $p < .01$ *** $p < .001$

IV.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결혼과, 자녀, 이혼, 자아성취의 중요성, 부부 역할관 등 가족과 관련된 포괄적인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특히,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5,818명의 기혼여성으로 제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 자료를 활용하였다. CES-D10을 활용하여 우울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족가치관 요인(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 가정요인(가구총소득, 주거점유형태, 자녀수, 남편 연령과 학력, 일자리 직종, 가사노동분담만족도, 갈등상황원인, 시댁가족과 친정가족과의 관계), 인구사회 요인(연령, 학력, 직종, 거주지역, 종교, 주관적 건강)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연구집단의 모든 변수에 대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고, 각각의 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들 중에서 우울과 가족가치관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요인별로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혼여성은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약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고,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였다. 즉, 기혼여성은 결혼과 자녀, 이혼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전통적 성향이 약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그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결혼관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전통성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가족가치관 요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족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으로는 1년간 가구총소득이 낮고, 남편 연령이 많으며, 가사노동분담에

불만족하고 갈등상황 중 특히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로 갈등을 겪으며, 주관적 건강이 나쁜 집단이 우울 경험이 높았다. 반대로, 남편의 직종이 서비스, 판매 종사자거나, 여성의 직종이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는 무직인 집단에 비해 우울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선행연구 방법 및 결과와 비교

선행연구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결혼관, 성역할, 자녀, 남아선호, 부양, 효, 가족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영미, 한상훈,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족가치관으로 정의되어 사용되는 요인을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제 4차 여성가족패널(2012)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 직장임금근로자 1,480명을 대상으로 한 안운숙 등(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는 여성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요인(연령, 학력, 건강), 가정요인(가정소득, 부부활동빈도, 남편가사분담만족도, 가족가치관성향, 성역할태도), 직장요인(일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 직장 내 차별)을 구분하여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가족가치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 설문 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적 가족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가치관 요인이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적 가족가치관이 강할수록 여성의 정신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할수록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교차비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 외, 김영미와 한상훈(2014)은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가

족가치관의 하위 요인인 효의식과 성역할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결혼, 이혼, 자녀 등 결혼과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현동과 김명희(2011)는 여성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상호전이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기혼직장여성에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혼여성의 결혼관이 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이 결혼과 자녀를 중요시 하는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보다 개인의 자아성취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혼과 혼외 관계, 혼외 자녀, 동거 등을 허용하는 태도가 강한 기혼 여성은 개인주의적 결혼관을 성립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관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대립되면서 우울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혼여성의 결혼관은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즉, 전통적 성향이 약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반면, 부부역할관은 전통적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요소인 결혼관과 부부역할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혼관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부부역할관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의 경험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의 영역에서는 느리게 나타나지만(은기수, 2004),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양성평등 의식이 그보다 빠르게 확산되고(김규원, 1995),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과 가정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 결혼과 자녀보유의 절대성이 중시되고 있

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부부역할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면서 개인주의적 결혼관과 전통적 부부역할관의 성향이 높은 기혼여성은 내면의 가치관 충돌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도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요구되지만, 출산과 양육이라는 역할과 직장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가족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 연구는 많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부부역할로 정의된 성역할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가 있는 반면(한인영, 홍선희, 2011; 홍선희, 1996), 송리라, 이민아(2012)의 연구는 여성의 우울에 성역할 태도의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현아(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우울증과 성역할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전통적 부부역할관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결과가 상이한 것은 연구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조사 대상의 연령이 모든 성인 여성이 아닌 20대 -40대 등으로 제한적이며,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정 요인에서 1년간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우울의 경험이 낮게 나타났는데 경제수준 및 소득수준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강석임, 전희정,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남편연령이 20-30대에 비해 50대인 기혼여성이 우울 경험에 더 높은 것은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간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갈등이 적다고 밝힌 연구(박은옥, 1997)결과와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지지 점수가 높다고 밝힌 연구(이인숙 2002)결과와 함께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편 직종은 무직과 비교할 때, '서비스, 판매종사자'인 기혼 여성에서 우울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지연, 이성은(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사

노동분담에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우울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사노동분담만족 변인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의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등상황 원인은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우울 경험이 높게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부부간의 갈등은 문화적 특성상 가족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연구(박경순, 200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인구사회 요인에서 기혼여성의 직종이 전업주부보다 농임어업 종사자인 경우 우울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직을 포함한 직업분류별 우울증상 정도에서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의 우울 증상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안지연, 이성은, 2014). 주관적 건강은 나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강석임, 전희정 2013; 이화진 등, 2015).

최근까지 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가정과 직장 환경에서 여성이 지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주목해 왔다. 전국의 대표성을 가진 패널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의 경우, 인구사회 요인, 남편의 특성과 지지를 포함한 가정 요인, 직장 요인, 건강 요인 등을 분류하여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의 내적 심리 특성으로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관련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가치관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가치관, 특히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의 삶의 1차적 환경인 가족에 대한 주요한 심리특성 요인이자 사회와 가족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다(최인영, 최혜경; 2009).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직장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기혼여성의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우울과 가치관 관련성 메커니즘

가치는 그 범위와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일반적으로 사회의 문화 체계의 일부로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특성과 문화, 사회구조의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는 개념이다 (최인영, 최혜경; 2009). 가치관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 인간본성, 세계, 사회문화, 개인의 진로 및 직업, 가정 생활, 대인관계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및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나은영, 차유리, 2010; Newcomb et al. 1970).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나은영과 차유리의 연구 (2010)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된 가치관 관련 연구는 총 23편으로, 이 중 우울과 가치관의 관련성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관적 인지요소 중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이 가치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자기 평가,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포함한다(강석임, 전희정, 2013).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례, 2007; 김대명, 2014; 이윤주, 김진숙, 2012; 한인영, 홍선희, 2011). 낮은 자존감은 자아 이상(ego ideal)과 실제 자신의 상태가 불일치 할 때 초래되며, 이에 따른 자기애적 욕구의 좌절이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장은령, 2000; Fenichel, 194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치관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서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치관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충돌을 하여 내면의 갈등을 겪는 경우와 우울의 경험은 상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가족 관련 가치관으로 대표적인 개념인 가족주의(Familism)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가족주의란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결속력으로 정의된다 (Brody, 1985). 개인이나 그 어떤 집단보다도 가족을 우위에 두는 원리로도 정의되기도 한다(양옥경, 2002). 가족주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 발달과 개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Neblett, Drake and Taylor, 2012).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족부양자 또는 가족 간병인의 우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문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는 환자 부양자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지만,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문화에서는 그 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Youn et al., 1999). 치매 환자 부양자인지하는 우울과 부담, 가족주의와의 관계를 히스패닉계 미국거주자와 스페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Losada et al.,2006)에 따르면, 가족주의는 히스패닉계 미국거주자에게는 보다 적은 부담과 관계가 있지만, 스페인인에게는 보다 높은 우울의 경험과 관계가 있었다. 한국인과 미국거주 한국인, 미국 백인 간병인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우울 경험을 분석한 연구(Youn et al.,1999)는 세 그룹 중에서 한국인에게서 가장 높은 가족주의가 관찰되며, 우울 경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개인의 내재화된 증상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와 가족주의 가치관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Zeiders et al.,2013).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이며, 신념 및 판단의 근거로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김연수, 2002). 가족은 개인을 둘러싼 일차적인 환경으로,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김영미, 한상훈, 2014). 한국은 부계가족 중심으로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남녀 간의 역할 분리가 엄격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전해내려 왔다(옥선화, 진미정, 2011).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혼의 증가, 동거의 출현, 결혼의 지연 등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급속하게 변해 왔으며 이에 따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전근대적인 것에서부터 근대적인 것까

지 혼재되어 있고, 때문에 이해갈등과 긴장이 잠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주희, 2009).

3.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결혼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여성의 우울 경험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자아실현과 개인의 성취보다 결혼이 더욱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성의 우울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여성의 개인의 성취를 지지하는 사회분위기의 전환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사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여성이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지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정, 이혼,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를 존중하고 이들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통적인 부부역할관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 경험이 높은 것은 반대로, 전통적인 부부역할을 벗어나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출산과 육아, 가사 때문에 직장일을 포기하거나 재취업이 힘든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가정과 일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울의 관련 요인으로서의 가족가치관 요인에 대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족가치관 요인이 기혼여성의 우울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

인된 만큼,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성인남성과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성인의 우울과 가족가치관 요인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우울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넷째, 소득수준과 일자리 직종에 따라 우울의 경험이 달라지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맞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우울로부터 고통 받고 이로 인해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편의 연령과 가사노동분담만족, 갈등상황 원인에 따라 우울의 경험이 달라지므로, 기혼여성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갈등상황 원인에서 시대, 친정가족과의 관계 문제의 우울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강한 것을 고려하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가족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본 연구의 장점과 제한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여성의 내적 심리 특성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관련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기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가치관, 특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의 삶의 1차적 환경인 가족에 대한 주요한 심리특성 요인이자 사회와 가족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다(최인영, 최혜경; 2009). 이러한 가치관은 직장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4차 여성가족패널(2012)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혼 여성 5,818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가치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정요인, 인구사회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족가치관 요인이 기혼 여성 우울의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이 진행되었던 조사시점만의 우울을 파악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관찰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연구로, 여성의 가족, 일, 일상생활 등 3가지 주요영역을 조사하여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우울의 경우, 1차와 2차 자료에서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3차와 4차에서 우울을 측정한 문항 척도가 동일하지 않아 4차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둘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CES-D10의 문항척도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것과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이 합의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역학용 우울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축약한 CES-D10을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에서의 CES-D10은 문항의 척도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문항척도인 1점(대부분 그랬다)에서 4점(극히 드물다) 척도와 방향성은 같으나 문항척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CES-D10의 우울과 비우울의 절단점(cut-off point)이 21점에서 25점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며, 하나의 절단점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도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을 활용하여 절단점을 24점으로 사용한 연구(Byeon and Cho, 2015)와 마찬가지로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으로 24점을 사용하였다. 21점에서 24점까지 순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24점을 적용한 모델의 타당도(c-statistics)가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우울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CES-D10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안윤숙 등, 2016; 정유림, 2016; 이화진 등,

2015; 이슬기, 2014).

셋째, 여성가족패널 설문 구조는 직접적인 자녀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가구에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아동이 있는지 질문 후에 그 아동과의 관계를 차례로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자녀가 있음으로 분석될 125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가정 요인 독립변수 (자녀 수, 갈등상황경험) 측정의 정확도를 위함이며, 가구에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이 있으나 그 관계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가 친인적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지위가 자녀와 손녀, 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종 연구대상은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미혼 성인자녀가 있는 어머니이거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으로 제한되었다.

넷째,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가족 관련 가치관을 측정한 선행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패널에서 가치관 관련 문항을 선택적으로 일부를 활용하거나 문항 모두를 활용함으로써 통일된 측정문항으로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배광일, 김경신, 2012; 안윤숙 등, 2016; 장한나, 이명석, 2013). 안윤숙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가치관을 측정한 5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53이다.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주제로 한 이여봉(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 태도를 측정한 4항목들 간 상관관계에 기초한 내적 일치도는 0.69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가치관 요인을 사분위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척도의 값이 연속형이 아닌 계단식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 범주의 값이 고르게 분류되지 않았다.

다섯째,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인정, 2014; 이윤주, 김진숙, 2012)가 있어 자녀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나, 여성가족패널은 자녀의 연령을 조사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미혼 성인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우울을 파악하는데 유아기 자녀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자녀, 미혼 성인자녀를 자녀의 수에 따라 범주를 세분화 하여, '미취학 자녀 1명', '미취학 자녀 2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초중고

자녀 2명 이상', '성인자녀 1명', '성인자녀 2명 이상', '미취학 자녀 1명 +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미취학 자녀 2명 +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 성인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2명 + 성인자녀 1명 이상' 등 11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빈도수가 지나치게 적은 미취학 자녀, 초중고 자녀, 성인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n=7)와 미취학 자녀와 성인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n=3)는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그룹에 포함시켜, 이 그룹에 따른 우울은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섯째, 자아존중감은 여성의 우울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성가족패널에는 이를 측정하는 항목이 없었다. 또한 가족 관련 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론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제한점이다. 개인의 심리특성인 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밝혀진 만큼, 자아존중감과 가치관 그리고 우울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2012년에 조사가 완료된 제 4차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4년 조사한 제 5차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2016년 5월 19일 발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 요인과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으로, 독립 변수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요인에 따른 우울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 여성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 가족가치관 요인과 우울 경험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우울과 가족가치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요인, 인구사회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변수 분석 시,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 1년간 가구총소득, 자녀 수, 남편 연령, 남편 학력, 남편 직종, 가사노동분담만족, 갈등상황원인, 시댁가족과 관계, 친정가족과의 관계, 여성의 연령, 학력, 직종, 거주지역에 따라 우울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변수 분석 시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 1년간 가구총소득, 남편 연령, 남편 직종, 가사노동분담만족, 갈등상황원인, 여성 연령, 주관적 건강이 우울 경험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요인인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첫 연구이다. 그 결과, 가족가치관 요인은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 요인을 순차적으로 보정하였을 때,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기혼 여성의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여성은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였다. 즉, 기혼여성은 결혼과 자녀, 이혼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관의 전통성이 약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그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였다. 이는 결혼관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즉, 전통성이 약하면서도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전통성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기혼여성에서 결혼관과 부부역할관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요인과 인구사회요인으로는 1년간 가구총소득이 낮고, 남편 연령이 많으며, 가사노동분담에 불만족하고 갈등상황 중 특히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로 갈등을 겪으며, 주관

적 건강이 나쁜 집단이 우울 경험이 높았다. 반대로, 남편의 직종이 서비스, 판매 종사자거나, 여성의 직종이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는 우울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혼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여성이 우울 경험이 높은 것에 주목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여성의 개인의 성취와 사회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사회분위기의 전환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타깃 지향적 프로그램,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해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석임, 전희정. 기혼 여성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구주 여부와 빈곤 여부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013; 33: 161-188
- 김경미, 양혜영.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 다차원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2005; 18(3): 1-20
- 김경신. 출산과 가치관 : 성, 연령,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 및 영향 분석. 한국 가족관 계학회지 2013; 18(2): 123-147
- 김규원.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1995; 7: 213-255
- 김대명. 생활사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 직장여성 과 전업주부의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014; 32(2): 113-131
- 김미래.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07; 12(4): 761-777
- 김연수. 기혼여성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 사회복지연구 2002; 2: 97-124

- 김영미, 한상훈. 중년기 남녀의 가족기능 및 가족가치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2014; 35(2): 79-100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999; 4(1): 1-14
- 김현동, 김명희. 기혼여성직장인의 가치관에 따른 직장과 가정의 긍정적 전이 과정탐색. *The Women's Studies* 2011; 81(2): 33-67
- 김현미. 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포커싱적태도의 조절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6.
- 김혜원.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97; 11(2): 111-127
- 나은영, 차유리.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0; 24(4): 63-93
- 노상미. 기혼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 결정요인 : 여성가족패널 종단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문상정. 중년기 여성의 부부갈등과 부정적 정서간의 관계 : 여가경험은 심리적 완충 효과가 있는가. 관광경영연구 2013; 17(3): 105-128

박경순. 대상관계 이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 가정의 결혼갈등과 주부 우울증.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09; 17(2): 185-198

박은옥. 기혼취업여성의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7; 7(1): 80-92

박재규, 이정림.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011; 29: 99-128

박재홍, 정지홍. 독거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음주의 매개효과검증. 노인복지연구 2010; 47: 309-330

배광일, 김경신.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지연구 2012; 43(3): 239-266

백주희.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9; 27(3): 239-251

보건복지부.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1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제 4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2016

손승영, 김은정. 여대생의 가족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현상과 인식 2010; 34(4): 169-200

송리라, 이민아. 성역할 태도와 우울 : 성별, 연령집단별 비교분석. 한국인구학회지 2012; 35(3): 87-116

신경림. 중년여성의 우울 증상 실태조사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999; 11(4): 858-870

신미애, 김태숙. 도시와 농촌 중년여성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 관계. 충남대 간호학술지 2003; 6(1): 30-40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이호영, 유계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1991; 30(4): 752-767

심수명. 한국 기혼여성의 우울증 역학 분석 및 치료 전략.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5; 10: 53-88

안미영. 한국 중장년 기혼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2015; 48: 219-247

안윤숙, 김홍주, 이현진, 하영진.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을 중심으로.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2016; 7(1): 157-185

안지연, 이성은. 직업분류 및 고용분류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증상, 의료기관 이용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14(2): 409-420

양옥경.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002; 51: 229-256

양재곤. 정신과 환자의 자가평가 우울 척도에 관한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1982; 21(2): 217-227

오지혜. 한국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 가정 내 요인과 가정 외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옥선화, 진미정.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11; 49(4): 67-76

유계준, 신승철, 전상배, 윤관수, 김민권, 문수재, 이민준. 한국인의 우울에 관한 역학적 조사. 대한의학협회지 1991; 34(2): 172-180

- 은기수. 한국인의 가족가치 : 5 개국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2004; 17(3): 137-182
- 이동훈, 함경애, 김지윤, 김민경, 정성원, 김정범. 성별에 따른 주요우울증의 DSM-IV 증상 연구. 재활심리연구 2013; 20(3): 501-522
- 이미애.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1; 22(4): 623-635
- 이선아.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슬기. 기혼 직장여성의 성역할태도, 일 만족도, 부부갈등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여봉.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2010; 33(1): 103-131
- 이윤주, 김진숙.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12; 13(5): 2229-2249

- 이인숙.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지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2; 8(4): 482-493
- 이인정. 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우울에 대한 영향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4; 31(1): 27-43
- 이지원.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3; 7(2): 207-216
- 이진숙.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 성역할태도, 일가족 양립 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12; 43(4): 5-30
- 이화진, 서은경, 정유림, 남인숙, 한삼성. 기혼직장여성의 가족적 지지가 우울 증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5; 9(2): 66-79
- 이해중, 조경숙, 윤장호, 박현숙. 우울 경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014; 14(1): 9-16
- 이현아. 재미 한인여성의 성역할과 우울증세의 연구. 교수논총 2004; 15: 207-235
- 임선영, 임우석. 기혼여성의 우울 영향 요인에 관한 한일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2; 17(1): 175-194

장문선.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결혼만족도 : 내외통제성, 역기능적 태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03; 4(3): 577-590

장문선, 김영환.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 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3; 22(2): 399-414

장은령. 중년 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장한나, 이명석.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경제학회지 2013; 51(4): 425-428

정세미.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정유림. 기혼 여성의 남편의 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결혼 행복감을 매개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중앙심리부검센터. 20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16.

전진숙. 한국에서 우울증의 역학 부담 및 무능력. 우울·조울병 2003; 1(1):12-13

- 최인영, 최혜경.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9; 14(1): 81-109
- 최말옥.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1; 27(2): 19-40
- 하은혜, 오경자, 김은정.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부부관계 적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9; 18(1): 79-93
- 홍선경.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한인영, 홍선희.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1; 16(4): 477-498
- 호운정. 보육형태와 가사노동분담이 기혼여성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2015; 41(2): 77-87
- Brody, E.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1985; 25: 19-29

Byun HW, Cho SH.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2015; 7(4): 135-144

Fenichel. 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1945; NY: W.W.Norton: 86

Newcomb, T.M., Turner. R.H. & Converse. P.E. Social Psychology 1970;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Nolen-Hoeksema, S. Sex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987; 101: 259-282

Neblett. E.W, Drake. R.D, Umana-Taylor, A.J. The promise of racial and ethnic protective factors in promoting ethnic minority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 2012; 6: 295-30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5

Popenoe, D. Beyond the Nuclear Family: A Statistical Portrait of the Changing Family in Sweed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7; 49(1): 173–183

Randolff LS.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 o 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97; 1: 385–401

Shaffer, D.R.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s.* Belmont : Wardsworth, 2002

Yoon SY. Is gender inequality a barrier to realizing fertility intentions? Fertility aspirations and realizations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2016;
DOI:10.1080/17441730.2016.1163873

Youn G, Knight B.G, Jeong H.S, Benton, D. Differences in familism values and caregiving outcomes among Korean, Kore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dementia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1999; 14(3): 355–364

Zeiders K.H., Updegraff K.A., Umana–Taylor A.J., Wheeler L.A., Perez–Berena N.J., Rodriguez S.A. Mexican–Origin Youths'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 The rolw of Familism Valu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3; 53(5): 648–654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Family values
in Married Women

– 4th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Panel
(2012) Data Analysis–

Sojin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Depressive mood in married women negatively affects not only the persons concerned but also other family members. Previous studies on women's depression have focused on family and social support for the affected persons. Family value is an important psychological concept related to one's family as the primary environment and is a strategic notion in studying the society and family structur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family values in married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818 married women of age from 20 or older in the 4th panel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conduc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on married women's depressions. As a result, family value factors, family factors,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were selected.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est as one-variabl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multivariable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influence of the family value factors on depression in married women with family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rolled, 'model1', 'model2', and 'model3' were set up to control family value factors, family factors,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by phase.

The results found were that family value factors, as the analysis went from Model 1 to Model 3, increased their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boosting the predictability. Married women with a stronger view of family-oriented marriage had few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Married women with a stronger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had great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In other words, married women who had weakening their traditional view on marriage, children and divorce, had great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s with a stronger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had great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married women, view on marriage and view on marital roles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married women with a strong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yet a strong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had great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For family factors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those married women - who had a low yearly income, whose husband age was old, who complained about the extent of sharing housework, who, among conflict situations, had conflicting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in-law, and their maternal parents, and whose health was perceived as not good - had great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On the other hand,

those married women - whose husband jobs were in the service or sales sector, and whose jobs were in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 had low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compared to the jobless group.

This study is the first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values - including views on marriage, children, and marital roles within families - and depression in married women, with family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rolled by stag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our attention is drawn to the fact that married women who have a strong individualistic tendency of family values have greater experiences of depressive moo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where diverse forms of family and individual women's achievements are support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uch support policies. Also,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programs aimed at easing the depressions of socio-economically low class people, and to execute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aimed at alleviating women's depress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husbands and families.

Keywords: depression, married women, family values,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view of traditional marital roles